

**창세기 45장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5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시다만, 그것은 하나님,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 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 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9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서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 45 장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부분에서 시작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모든 일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 형제들 갈등에서 나온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 장 12-13 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종으로 팔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세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창세기 50:20 과 연관을 시키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장 교사 설명 참조).
- 8 절에서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은 요셉이 이집트를 잘 통치하여 바로가 영화롭게 잘 지내는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 10 절에 고센 지역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지역이 정착합니다.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는 없으나,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을 바탕으로 고센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넘어오는 입구 쪽에 위치한, 나일강의 동쪽 끝부분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집트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구분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4 절 이후의 내용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창세기 46 장: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가다**

2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4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26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예순여섯 명이다. 27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일흔 명이다.

-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집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하십니다.
- 야곱의 가족들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집트로 갑니다 (6 절). 그리고 8 절부터 27 절에서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과 숫자를 열거하는데, 야곱의 아내를 기준으로 레아, 실바, 라헬, 빌하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19 절과 20 절에서 요셉과 그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어서 이 리스트는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야곱의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 절에—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집안 식구가 일흔명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사도행전 7:14 에 나오는 일흔 다섯명과 다릅니다. 26, 27 절의 숫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의 자손들 이름, 요셉의 다른 아들? – 성경교사 설명 참조)

**창세기 47장:**

7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8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9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햇수가 백 년 하고도 삼십 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햇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햇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0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27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28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열일곱 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백마흔일곱 살이었다.

- 47 장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모두 바로에게 소개하지 않고 다섯명만 인사시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목자라고 소개를 하였기에 바로의 가족들을 이들이 돌보게 됩니다. (6 절) 그리고 야곱이 바로와 만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반복되는 말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 11 절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머무는 지역을 라암세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고센 지역의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11 절에 라암셋이 언급되는데 같은 지역입니다. 아마도 요셉보다 좀 더 뒤에 이집트를 통치한 라암셋 2 세를 의미하는 지명으로 추측됩니다.
- 13 절부터 26 절은 기근 가운데 백성들의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백성들은 구제를 받고 바로의 통치는 안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 야곱은 이집트로 와서 17 년을 지내고 죽는데, 그의 시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아들 요셉에게 부탁합니다.